

#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체육교류의 새로운 전기

## Online Series

2018. 10. 02. | CO 18-42

이 우 태 (기획조정실 연구부장)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체육교류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합의를 이루어냈다. 2020년 올림픽 단일팀 추진은 체육교류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고,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추진은 전쟁과 갈등 이미지의 한반도가 평화의 상징으로 전환되는 계기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가속화시키고 남북 교류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단일팀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 간 ‘체육협정’과 ‘남북체육교류공동사무국’과 같은 제도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고 올림픽 공동개최를 위해서는 남과 북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국내적으로는 ‘올림픽유치기획단’을 정부 내에 설치하여 올림픽공동개최를 위한 제반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 평양공동선언과 남북체육교류

남북 양 정상은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사회문화 분야 협력과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는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부분을 재확인하고 구체화시켰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평양공동선언에서 사회문화 분야 협력에 대한 합의는 제4조에 3개항에 걸쳐 담겨있는데 1항에서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 교류’를 더욱 확대시키고 지난

봄 김정은 위원장이 공언한 북한예술단의 서울공연을 10월 중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3항에서는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 개최와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실무협의 진행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에 민족공동행사를 추진하기로 한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명시하여 사업추진의지를 높였다고 볼 수 있다.

1항과 3항의 내용이 지난 판문점 선언 합의사항을 재확인한 측면이 강하다면 2항의 합의사항은 남북체육교류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만한 내용이 담겨있다. 2항에서 양 정상은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를 유치하는데 협력’하는데 합의함으로써 타 사회문화 분야에 비해 체육 분야 교류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중장기성 교류 사업을 합의한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 2020년 도쿄올림픽을 2년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단일팀 구성에 합의함으로써 체육교류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체계적으로 단일팀 구성을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2032년 하계올림픽의 공동개최 합의는 스포츠를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올림픽 정신이 남북 공동개최를 통해 구현될 수 있고 올림픽 공동개최가 비단 체육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전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남북교류협력 분야의 확대와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지속적인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과제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정상이 합의한 국제대회 남북단일팀 참가의 역사는 1991년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포르투갈 세계청소년축구대회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팀이 활성화 된 시점은 2018년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팀 구성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이후 남과 북은 5월 스웨덴 할름스타드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7월 2018 코리아오픈 탁구대회에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였으며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여자농구, 카누, 조정부분에서 남북 단일팀이 코리아(Corea) 팀으로 참가하여 여자 카누용선 금메달, 여자농구 은메달 등을 획득하였다. 또한 올 10월 6일부터 열리는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도 남북한은 개최식 공동입장을 비롯하여 수영과 탁구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남북단일팀 구성에도 불구하고 단일팀 구성 합의 시점의 문제, 선수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 국제재제로 인한 단일팀 운영의 어려움 등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지난 몇 차례의 단일팀 합의가 시기적으로 대회에 근접하여 결정되다보니 단일팀 선수 선발과정에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참가를 목표로 준비해 온 국내 선수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비판과 함께 선수 선발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그 동안의 남북 단일팀은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단일팀이 1년에만 수차례 구성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감동’이라는 키워드에만 단일팀의 의미 부여를 할 수 없고 지금부터는 스포츠의 본질인 경기력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으며 남북이 한 팀으로 참가할 경우 경기력의 상승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체육 분야 교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국제제재 문제로 인해 단일팀 내에서 남측 선수와 북측 선수가 기본적인 용품조차 공유할 수 없었고 한국대표팀 유니폼 스폰서가 대북제재를 이유로 단일팀 유니폼 제작을 거부함으로써 급히 제3국 제조사 또는 국내기업이 급히 제작한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아시안게임에 단일팀으로 참가했던 카누 단일팀이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가하려 했으나 대북제재로 인한 비자발급 문제로 출전이 무산된 경우도 있었다.

최근 정부는 선수선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2020년 도쿄 올림픽 단일팀 구성 종목과 예선전부터 단일팀이 참가하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올림픽 참가를 2년 정도 앞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과거 시간의 압박 문제와 선수 선발의 공정성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으나 단일팀이 2020년 올림픽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해서는 남북 간 ‘체육협정’ 또는 ‘체육교류의정서’ 체결과 같은 제도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체육교류에 대한 ‘협정’ 또는 ‘의정서’가 체결될 경우 남북 체육교류를 정례화 시키고 국제대회 또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과 같은 스포츠 메가 이벤트(mega event)에 단일팀 구성 및 대회 공동 개최 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남북 체육교류를 전담하는 남북체육 교류공동기구 즉, ‘남북체육교류공동사무국’을 남북연락사무소 내에 설치하고 사무국 내에 ‘경기력측정위원회’와 ‘단일팀구성위원회’를 설치하여 단일팀 구성을 위한 원칙 및 기준을 마련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점검 및 향상 방안, 그리고 공동훈련 스케줄 및 장소 등을 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체육교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향후 남북 단일팀 구성을 비롯한 남북체육교류협력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체육 분야 교류에 한해서 대북제재를 완화시키거나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교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적어도 한국대표팀이 사용하던 용품에 대해서는 북측 선수들이 공동사용하거나 IOC나 국제경기연맹 등이 인정한 단일팀의 국제대회 참가에 대해서는 대북제재 면제 사항으로 인정받는 방안이 요구된다.

##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와 새로운 남북관계

2020년 남북 단일팀 추진과 더불어 체육 분야 합의의 다른 한 축은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추진인데 이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올림픽 공동개최는 올림픽 정신의 구현을 통한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올림픽 현장에서는 ‘스포츠를 통해 평화롭고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드는 것에 공헌하는 것’으로 올림픽 정신을 규정하고 있다. 2032년 올림픽이 남북공동개최를 통해 성공적으로 치러진다면 이는 올림픽 정신을 구현하는 사례가 될 것이며 남북한 모두에게 한반도 분단 이후 수십 년간 지속된 반목과 갈등의 역사를 접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는 평화로운 안보환경이 전제조건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올림픽 기간 동안 ‘휴전결의안’을 채택하고 모든 회원국이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등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로운 한반도 안보환경이 형성되지 않고서는 올림픽 남북공동개최가 용이치 않다. 올림픽 개최지 결정은 보통 개최년도 7년 전에 이루어지나 최근에는 개최년도 11년 전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2032년 올림픽 개최지는 2021년에서 2025년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한반도의 비핵화는 빠르게는 2021년, 적어도 2025년 안에는 완료되어야 한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다시 협상 테이블 위로 올라오고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021년 1월까지 북한의 비핵화 완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미국이 속도 있는 상응조치를 취해준다면 2021년 내 비핵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2021년이 비핵화 완료시점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올림픽’이라는 타임 테이블은 비핵화를 가속시키고 기존의 정전체제가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으로까지 발전되어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시기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남북교류협력의 지평을 넓혀 새로운 남북관계 설정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 올림픽 유치 및 공동개최 과정 속에서 남과 북은 체육은 물론 경제, 관광분야까지 교류협력분야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교통, 통신을 비롯한 사회



인프라 시설이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선수단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올림픽 개최지를 돌아다닐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은 수도 평양이라 할지라도 교통과 통신 등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북한 체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외부세계에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에서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고 10월 중 현지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시작으로 남북 공동 개최지로 유력한 서울과 평양 사이의 교통, 통신망 구축 및 정비와 같은 협력 사업이 함께 안정적으로 추진된다면 남북교류협력 분야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아울러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서울과 평양, 그리고 한라산과 백두산까지 연결시키는 ‘평화관광벨트’로 조성한다면 북한은 기존의 폐쇄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가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고 남과 북은 관광협력이라는 새로운 협력분야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남북 올림픽 공동개최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번영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개발 및 개방 문제가 동시에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따라서 정부는 2021년 비핵화 완료를 염두에 두고 북한과의 올림픽 공동개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내부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적으로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남북올림픽공동유치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마스터플랜을 완성해야 하지만 이에 앞서 우선적으로 정부 내 ‘올림픽유치기획단’을 발족시켜 올림픽 공동개최를 위한 제반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시기별로 준비·추진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향후 고려사항

이번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체육교류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합의를 이루어냈다. 2020년 올림픽 단일팀 추진은 체육교류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추진은 전쟁과 갈등 이미지의 한반도가 평화의 상징으로 전환되는 계기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가속화시키고 남북교류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올림픽 공동개최는 단순히 계획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이고 남과 북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제반분야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만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지난겨울 얼어붙어 있던 남북관계를 해빙시키는 훈풍역할을 해온 남북 체육교류가 이번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는 물론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태풍의 눈으로 진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KINU 2018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